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2, 2026 Vol. 1027

베델교회 동사목회 황모세 목사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첫 주일 설교 "영수증 없는 인생"
"행위 아닌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



황모세 목사가 베델교회 주일예배에서 '영수증 없는 인생'을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 ⓒ 베델교회 영상 캡처

베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동사목회를 시작한 황모세 목사가 27일 주일예배에서 자신의 행위와 성취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을 강조했다. 베델교회에서 처음 주일 설교를 전한 황 목사는 중심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다.

이날 황 목사는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갈라디아서 6장 12~15절을 본문으로 '영수증 없는 인생'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과 성과를 내세우려는 신앙을 '영수증'에 비유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요구했던 이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순종과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로 삼을 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십자가에 머물러야 될 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며, 자신의 수고를 기록한 영수증을 하나님께 내밀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마저 자랑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울이 자신의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데 주목했다.

황 목사는 "이룬 것보다 얻은 것을 자랑하십시오"라며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종교인으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베델교회에서 보낸 첫 한 주 동안 만난 성도들의 모습도 소개했다. 이른 시간부터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비롯해 양로병원 사역과 소망부, 청년들의 전도 현장 등을 지켜보며 받은 인상을 나눴다.

그러면서 베델교회가 이어온 다양한 사역과 오랜 역사가 그 자체로 교회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며, 교회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들리기를 소망했다. 그는 교회를 찾은 사람이 "베델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황 목사는 30일부터 'Kingdom Perspective: Covenant'를 주제로 8주간 수요말씀여행도 인도한다.

베델교회는 지난 7월 18일 정기제직회를 통해 황모세 목사를 제5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北, 中 국경 일대서 성직자 테러 · 납치

북한 당국이 중국 영토 내에서 탈북 시도자 및 체제 이탈 우려 인물들을 대상으로 납치, 살해, 비밀 감옥 구금 등의 초국가적 인권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표적에는 IT 기밀을 다루던 해커와 대북 선교 활동을 벌인 기독교 인사 등이 포함된다.

9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파견 인원의 망명이나 이탈 조짐이 포착될 경우 가짜 핑계로 베이징으로 유인한 뒤 주중대사관 내 비밀 감옥에 구금해 왔다.

복수의 진술인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주중 북한대사관(대사 리룡남) 영사부 건물 지하에 감금 시설이 존재한다. 2017년 숙소 신축 보도 및 2024년 MBN의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이 송환 대상 외교관과 이탈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조성·운영해 온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곳으로 압송된 인물들은 영사부 지하 감옥에 갇혀 북한 형사 절차상 예심 성격의 강도 높은 초기 취조를 받으며, 평양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신 깁스 등으로 저항 불능 상태를 만들어 고려항공편으로 강제 북송된다.

1988년 11월 11일 평양에서 태어난 30대 초반의 북한 해커 배용주의 사례가 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위장해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를 익힌 뒤 중국으로 파견됐다. 그는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한국 정부기관과 중국 군사기관을 해킹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이후 한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했다.

배용주는 2023년 중국 내몽골에서 국경을 넘어 몽골로 탈출하려다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북한의 즉각적인 신병 인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몽골 후흐허트에서 6개월간 가혹하게 취조하며 북한 해커 조직의 실태를 파악했다.

노형구 기자 ➔12면에서 계속

그리피스 파크에서 십자가 순례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오는 10월 10일(토) 오전 7시 그리스피스 파크 정상에서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대행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며 남가주와 조국,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 기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 손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등 어떤 형태라도 가능하다.

장소: Griffith Park 정상 Parking Lot 앞, 소나무숲 6시 30분까지 도착

문의: 최훈 목사(213-700-7311)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담 환영
NEWST★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최대 40% 를
태양광 설치비 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 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나성제일교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준곤 목사, 나성제일교회 설교목사로 사역

1967년 모금사역 위해 LA 체류
이성우 목사, 김광삼 목사 통해 확인

한국CCC를 설립하고 대학생 선교를 기반으로 민족복음화운동을 이끌었던 故 김준곤 목사(1925~2009)가 미국 체류 당시 나성제일교회 설교목사로 사역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김준곤 목사는 1958년 한국CCC를 창설하고 대학생 선교를 중심으로 민족복음화운동을 펼치던 중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1967년 7월 모금사역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LA에 머물면서 1967년 4월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된 나성제일교회에서 설교목사로 사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준곤 목사의 임종까지 보좌한 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사역하며 김준곤 목사의 역사와 사역을 발굴하고 정리해 온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준곤목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가 이성우 목사(미주 크리스천헤럴드 대표)에게 처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후 나성제일교회 5대 담임목사를 역임한 김광삼 목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또한 1995년 8월 열린 CCC간사 가족수련회에서 김준곤 목사가 전한 'CCC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와 당시 'CCC 편지'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는 "김준곤 목사님은 1962년 2월 간사수련회에서 영적각성운동이 일어났고,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의욕적으로 사역을 확산해 가던 중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1967년 7월 모금사역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며 "LA에서 지내면서 1967년 4월에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된 나성제일교회 설교목사를 했다. 김준곤 목사님과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설교목사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그때 CCC 제자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김준곤 목사님께 여기서 교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목사님도 CCC 재정적 어려움과 한국 교회 일부의 반대도 있고 해서 그럴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내가 요나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1968년 7월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했다.

한국에 들어온 김준곤 목사는 1968년 8월 CCC 학사출신 108명과 함께 민족복음화운동의 제3집단을 표방하는 나사렛형제들을 창단했다. 이후 전군신자화운동 제안(1969년), 1971년 1월 1일 0시 기독교방송을 통한 민족복음화운동 선언, 시군단위 민족복음화 요원 강습회, 1971년 8월 대전충무체육관 1만명 민족복음화 요원 강습회, 1972년 7월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1974년 8월 '엑스플로74' 대회 등을 개최하며 민족복음화운동을 이어갔다.

김철영 목사는 "역사에는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김준곤 목사가 1967년 미국에 건너가서 돌아오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교통사고'라는 시련을 통해 소명과 사명을 다시 붙잡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족의 심장 같고 새벽이슬 같은 대학생들을 모판으로 민족의 입체적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풀러신학교 '설교 콘퍼런스' 개최

10월 26일 (월) 9시-5시
풀러 패서디나 캠퍼스

풀러신학대학원 코리안 센터는 오는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6 Compelling Preaching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이민교회에서의 설득력 있는 설교를 논의하고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교자의 영성과 준비, 설교의 맥락적 역동성을 다루며 신학적 깊이와 설득력을 갖춘 말씀 선포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설교학 및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강사로 선다.

콘퍼런스는 9시 10분 ▲ 김남중 박사(클레어몬트 신학교)의 키노트 강연 '설교의 설득력은 어디서 오는가?'로 시작한다. 이어서 ▲ 이아미 박사(풀러 신학교)가 '다중방식 언어를 구사하는 설교자 형성'에 대해, ▲ 김세염 박사(게렛 신학대학원 예전-설교학 박사)가 '설교자의 영성 훈련'에 대해, ▲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는 설교자'에 대해 전한다.

오후 1시 30분 부터는 ▲ 박현호 박사(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Yuba City)가 '이민교회 환경에서의 대안적 설교 형식'에 대해, ▲ 송병주 박사(선한청지기 교회)가 '강해 설교의 신학적, 실천적 요건'에 대해, ▲ 양성구 박사(조지폭스 대학교)가 '성경, 예술 그리고 설교'라는 주제로 창의적 설교에 대해 나누게 된다.

3시 20분 부터는 ▲ 구아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여성과 공적 증언'에 대해 ▲ 권혁빈 목사(시드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적 교회와 설교'에 대해, ▲ 허현 목사(ReconciliAsian)가 '평화 신학적 설교'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10월 26일 월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러신학대학원 패서디나 캠퍼스 Payton 101에서 진행되며, 현장 참석과 온라인(Zoom) 참석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재학생 및 동문은 무료이며, 일반 참가자는 $20이다.

컨퍼런스 웹페이지: https://fuller.edu/korean-studies-center/2026-compelling-preaching-conference/



레위성가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레위성가단은 오는 10월10일(토) 오후 5시 라팔마의 존 F. 케네디 고교 내 케네디 센터 포 퍼포밍 아츠(8331 Walker St., La Palma)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갖는다.

레위성가단은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인 성가단 중 하나로, 이번 연주회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한다'는 모토 아래 40년간 이어온 찬양의 발자취와 감사를 담았다.

총 5 무대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는 혼성합창 , 남성합창, 소프라노 윤예원, 첼리스트 이수정의 솔로 무대와 듀엣무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첫 무대는 레위성가단이 연다. 전통적인 찬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린다 스페바첵의 현대 합창곡과 헨델의 바로크 작품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한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초청 연주자들의 솔로가 펼쳐진다. 소프라노 윤예원과 첼리스트 이수정 등이 함께한다. 세 번째 순서는 남성합창과 솔리스트들의 협연으로 구성된다.

네번째 무대는 게스트 연주자들의 듀엣으로, 다섯번째 무대는 그동안 레위 성가단에게 배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무대로 마무리된다.

레위 성가단 40주년 연주회
일시: 10월 10일 토 오후 5시



주소: 833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문의: 714-323-7420(조신천 단장)

조셉 리 기자



“이민 목회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문은 열려 있다”

목회자 내집 마련 세미나가 샬롬센터 주최, 기독일보 특별 후원으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지난 9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되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80여 명이 참석해, 목회자들의 상황에 맞는 주택 구입 방법과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에는 비영리 주택상담기관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 곽윤영 집사(뉴스타 부동산), 세라 황(Urban Real Estate), 피터 김(Giving Tree Lending)이 각각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주택 시장 전망 및 구입 절차, 내집 마련 성공 사례, 융자 준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는 박은성 목사의 기도와 이인규 목사의 행사 소개로 시작됐다.





(위에서 부터, 좌, 우 순서로) 이지락 소장, 송정명 목사, 곽윤영 집사, 세라 황 집사, 피터 김 대표. ⓒ 기독일보

“주택 구입, 청빈에 어긋나지 않아”

이어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목사가 집을 갖는 것이 청빈의 삶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이민 목회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초기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기와 함께 생활하며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전 재산이던 2천 달러로 어떻게 놀웍 지역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간증했다.

그는 “집을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 집을 사게 됐다. 은퇴 후에도 머물 수 있는 장막이 마련됐다”며, 세미나에 참석자들을 향해 내 집 마련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이어서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이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했다.

LIPA는 LA시 내 저소득층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6만 1천 달러, MIPA는 중간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1만5천 달러를 지원한다. LA 카운티의 HOP(Home Ownership Program)는 최대 8만 5천 달러, CalHome(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WISH(Workforce Initiative Subsidy for Homeownership은 중저소득층의 첫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무상 다운페이먼트 보조금 Grant 지원 프로그램)는 구입자가 마련한 자금에 4대1로 매칭해 최대 약 3만2천 달러를 지원하며, Greenline은 최대 3만5천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지원한다.

이 소장은 “내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소득과 크레딧, 부채, 가족 구성, 구입 지역 등을 먼저 상담받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전망 및 구입 절차

이지락 소장에 이어 곽윤영 집사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넘어야 할 단계와 주의할 점을 ‘허들경기’에 비유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선수 선발전이 있다. 누가 선수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선수 대상이다.”

“첫 번째 허들이 뭘까?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내가 준비가 되려면 샬롬 센터하고 상담하고 교육을 받으면 출전 자격이 얻어진다.”

그 다음 단계로 수입과 자산을 바탕으로 구입할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이후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지역과 주택을 찾고, 인스펙션과 콘도일 경우 HOA 재정 상태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주택의 위치와 가격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을 비롯해 교회와 직장까지의 거리,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주택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

세라 황 집사(Urban Real Estate) 는 “왜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가”를 먼저 짚고, 실제 구입 사례로 그 우려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손님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집을 안 사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려 한다.”

그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로 1) 다운페이먼트 부족, 2) 모기지 상환에 대한 부담, 3) 렌트보다 높아지는 월 지출, 4) 집수리에 대한 걱정, 5) 높은 집값과 이자 등을 꼽았다. 그러나 각각의 문제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과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을 찾는 방법을 활용하면 주택 구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한 경우 샬롬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현재보다 훨씬 좋은 주거환경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여건이 나아지면 더 나은 주택으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융자 준비 절차

마지막 순서로 피터 김(Giving Tree Lending) 대표의 ‘융자 준비 절차’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목회자 자녀(PK)이기도 한 김 대표는 목회자 가정이 처한 재정 현실에 공감하며 융자 승인 과정에서 겪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 3년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었다면 교회 사택에 거주해 온 목회자도 첫 주택 구매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그린라인이나 HOP, LA시의 LIPA·MIPA 등 다양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면 본인 자금 부담을 1~3% 수준으로 낮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8시간의 주택 구매자 교육 이수와 최소 660점의 신용점수 충족이 기본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 승인 단계부터 렌더와 상담하며 모든 재정 내역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주택 구입의 열쇠”라고 당부했다. **주디 한 기자**



목회자 내집 마련 세미나가 샬롬 센터 주최로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 기독일보

10월 3일 OC 건강박람회, 오렌지한인교회서

남가주 한인의사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건강 검진 행사 ‘OC 헬스페어’가 10월 3일(토) 풀러턴 오렌지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검진과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혈압 및 혈당 측정을 비롯해 당뇨·당화혈색소(HbA1c)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뇌졸중 선별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함께 내과를 포함한 각 과 전문의들의 1:1 맞춤형 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사 후원이나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메일(kamasc2010@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일시: 10월 3일(토) 8시 30분 -12시
장소: 오렌지한인교회
643 West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브라이언 박, 미주 순회집회 '리바이벌 인 아메리카'



10월 10일 은혜한인교회
10월 11일 남가주새누리
13일 Tapestry LA서 집회

'Just Jesus' 대표 브라이언 박 목사가 10월 오렌지카운티와 LA, 뉴저지를 잇는 미주 순회집회 'REVIVAL in America'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집회는 10월 10일(토)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시작된다. 이어 11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 13일(화) 오후 7시 Tapestry LA Church에서 집회가 열린다.

동부에서는 17일(토) 오후 7시 30분 뉴저지갈보리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며, 이튿날인 18일(주일)에도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집회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한어권뿐 아니라 영어권을 위한 집회도 마련된다. Tapestry LA Church에서 열리는 집회와 뉴저지갈보리교회의 18일 오후 집회는 영어권(EM)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Just Jesus가 주최하고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협)가 공동주최한다. 브라이언 박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민한 한인 1.5세 목회자로, UCLA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금융계에서 일했다. 이후 신앙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목회와 방송사역의 길로 들어섰으며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다. 박 목사는 남가주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편, 청취자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방송사역을 펼쳤다.

2009년부터 미국 CTS에서 '미라클 아워' 등을 진행했다.

2021년 말 CTS 정규 방송사역을 마친 뒤에는 유튜브 기반의 'Just Jesus'를 통해 사역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말씀과 기도, 예배 콘텐츠와 함께 국내외 현장 집회를 병행하고 있다.

Just Jesus는 정기예배 '다와요@7:14'와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사역 '다가요' 등을 진행해 왔다. '다와요'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모토로 시작됐으며, 현장사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 해외로도 확대돼 왔다.

이번 'REVIVAL in America' 역시 한인 이민교회 1세대와 영어권 차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집회 일정은 ▲10월 10일(토)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 ▲11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 ▲13일(화) 오후 7시 Tapestry LA Church(EM) ▲17일(토) 오후 7시 30분 뉴저지갈보리교회 ▲18일(주일) 오전 11시 뉴저지갈보리교회 ▲18일(주일) 오후 1시 뉴저지갈보리교회(EM) 등이다.

조셉 리 기자

나성한인교회 부흥회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가을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박용규 목사(전 총신대 교수,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소장)는 27일 1부 주일예배에서 '감사함으로 구하라'(빌 4:6-7)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했다.

박 목사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환경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바울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수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모든 일에"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우리의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며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갔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결실을 맺은 교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최근 경험을 간증했다. 책을 집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스스로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갔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응급실 비용으로 약 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지 너무 큰 부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험회사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청원했고,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에서도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다.

"신학교에 입학한 지 44년이 됐는데, 학교에 다닐 때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은 바로 응답하셨고 어떤 것은 더디게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신학교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루 한 끼만 먹었던 경험도 나눴다. 박 목사는 "돈이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유학 생활 중에도 필요한 순간 장학금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밝혔다.

2009년 대장암과 폐암을 잇따라 진단받았던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됐다.

박 목사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뒤 의사가 폐도 검사해 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 폐암도 발견됐다"며 "전신 PET 검사를 앞두고 '하나님, 암 두 개면 족합니다. 더 이상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돌이켜보니 대장암 때문에 폐암도 발견하게 된 것이 감사했다. 대장암을 통해 폐암을 발견하게 된 것 자체가 감사였다"고 고백했다.

또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다시 시작한 새벽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며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목사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다시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집에서 교회까지 35분, 돌아오는 데 35분이 걸렸다. 힘들어도 매일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했다.

박 목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셨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게 돼 있다. 세상의 근심으로 채우느냐 거룩한 근심으로 채우느냐의 차이가 있다"며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센터메디컬그룹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그룹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생활 문화 활동 활성화

회원 전용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제공



문의연락 |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복잡한 시니어 보험, 이제는 쉽게!

무지개 보험과 함께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ISAAC KIM
(213) 700-5259



ROGER RO
(213) 210-1616



YONG-LESLIE KANG
(213) 249-3348



HAK JU LEE
(213) 800-2900



ILHWAN KIM
(714) 715-3944



GRACE HAN
(213) 819-8898



GEORGE PARK
(310) 755-0154

이런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립니다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를 준비하시는 분
- 현재 보험이 있지만 더 나은 보장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
- 타주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분
- 메디케어 Part A·B를 늦게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내게 딱 맞는 보험, 함께 찾아드립니다
가입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 후 끝까지 챙겨드리는 관리입니다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가족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irst Prime Insurance Agency

(213) 210-1616

무지개 보험과 함께 시니어 분들께 따뜻한 힘이 되어줄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전능한 기술? 인류 위협?… ‘AI에 관한 신학 · 윤리 선언’

HTSN, ‘제3회 디지털 목회와 선교 컨퍼런스’서 발표



컨퍼런스 첫 번째 파트가 끝난 후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점점 보편화 되어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목회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독교는 AI를 어떻게 규정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윤리 선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인간기술공생네트워크(HTSN)가 주최하고 예장 통합총회와 (재)대한기독교서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신학·기술공생목회연구소(KTTN)과 밀알디아코니아연구소가 공동주관한 ‘2026 제3회 디지털 목회와 선교 컨퍼런스’가 22일 오후 서울 도림교회 예향콘서트홀에서 ‘AI시대 목회를 다시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이날 컨퍼런스 말미, HTSN이 발표한 ‘인공지능에 관한 신학·윤리 선언’이었다. HTSN은 이 선언문에서 “인류는 지금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계와의 관련성 자체를 새롭게 묻게 한다”며 “인공지능을 전능한 기술로 여기는 낙관주의와 절대적 위협으로만 보는 종말론적 공포를 함께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 생명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학과 윤리의 관점으로 성찰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를 통감한다”며 “우리의 과제는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가면서도 그 방향과 한계를 묻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 피조세계의 온전함에 기여하게 하는 일에 교회, 교육기관,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위기 앞에서 우리의 인식이 부분적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류 공영을 위해 이 선언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며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HTSN은 “하나님의 형상은 지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의 관계에서 드러난다(창 1:26~27, 요일 4:8)”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사귐 가운데 계시며, 인간은 이 관계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형상은 지능이나 언어와 같은 특정 능력으로 환원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이나 독립적인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작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개발하고 배포하며 사용하는 인간과 제도에 있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마 22:37~40)”며 “율법과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인공지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 소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언어, 거리, 장애로 인한 장벽을 낮추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며, 사랑과 돌봄을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잠 15:22)”며 “인공지능의 개발 및 도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결정을 기업과 소수 전문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시민과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사용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정한 접근을 보장받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되, 사용하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과 학습, 배포와 활용 과정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엡 4:25)”며 “인간의 경험과 노동, 개인정보와 창작물을 정당한 동의와 보상 없이 데이터로 수집하고 상품화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은 설명 가능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편향과 차별, 허위 정보와 조작, 감시와 데이터 착취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주체도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살전 5:21)”며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는 그 사용법의 학습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지식과 그 결과물을 검증할 능력의 함양을 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HTSN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은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사 2:4)”며 “기술 발전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율살상무기를 비롯하여 인간을 부당하게 감시, 통제, 살상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생명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개발자와 사용자는 창조 세계의 보전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시 24:1, 창 2:15)”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도록 부름 받았다. 인공지능을 위한 전력과 물 소비, 광물 채굴 등으로 인한 생태적 비용이 가난한 지역과 미래 세대, 인간 이외의 생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인공지능의 생태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원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인공지능은 노동의 존엄 및 인간의 창조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약 5:4)”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이웃을 섬기는 존엄한 존재이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영 전 과정에서 노동 착취는 근절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됐다. ‘AI 시대를 조망하는 이론’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파트에선 김은혜 교수(HTSN 상임대표, 장신대)가 ‘AI 기술과 기독교 신앙’, 정대경 교수(HTSN 연구진, 연세대)가 ‘피지컬 AI와 소셜 로봇, 종교 로봇-신학적 성찰과 응답’, 손화철 교수(HTSN 연구진, 한동대)가 ‘목회 현장에서의 AI 사용-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AI 기반 목회 적용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파트에서 조성실 교수(장신대)가 ‘AI 시대, 목회의 위임과 책임’, 이경희 목사(수원성교회 담임)가 ‘AI 시대, 교회는 더 인간적이어야 한다-교회에서 AI 사용에 대한 평가’, 선우준 목사(행복한교회 담임)가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맡기지 않을 것인가-작은교회 목회자의 AI 활용과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AI 기술 기업의 최신 동향 소개’라는 주제의 세 번째 파트에선 이소용 공동대표(업폴)가 ‘AI는 이미 일하고 있다-산업의 실제 변화, 기업의 시선, 2027년 일하는 방식’, 서덕영 명예교수(HTSN 연구진, 경희대)가 ‘AI 오병이어-개발도상국에서의 오픈소스 AI’, 장수영 명예교수(HTSN 연구진, 포항공대)가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서비스 현황과 전망’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은혜 교수는 “기술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고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돌보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해 지구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이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AI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Just Jesus

REVIVAL in America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삶은 다시 회복됩니다



설교 **브라이언 박 목사**

10.10(Sat) 19:00 — **OC** 은혜한인교회 (KM)

10.11(Sun) 18:00 — **LA** 남가주새누리교회 (KM)

10.13(Tue) 19:00 — **LA** Tapestry LA Church (EM)

10.17(Sat) 19:30 — **NJ** 뉴저지갈보리교회 (KM)

10.18(Sun) 11:00 — **NJ** 뉴저지갈보리교회 (KM)

10.18(Sun) 13:00 — **NJ** 뉴저지갈보리교회 (EM)

주최 Just Jesus 공동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기획

후원 CTS AMERICA DIRECTV 규장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기독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사람과사회 CHTV

가장 순복음적인 대학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

신앙 토크ON

베데스다대학교 11대 총장 고경환 목사

영혼 울리는 실천적 목회자 양성
영산 신학의 현대화와 교육 혁신
한국 교회 연대로 장학지원 확대

고(故) 조용기 목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계 선교의 거점이자 미주 목회자 양성의 요람으로 세워진 베데스다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영성 회복과 신학 교육 혁신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월 19일 베데스다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공식 취임해 학교의 재도약을 이끌 고경환 총장(원당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베데스다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고 총장은 가장 먼저 신학 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하며, 시대를 깨우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만들어 내는 실천적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신학 대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막론하고 신학 교육이 위축되고 목회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베데스다대학교는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한다는 설립 당시의 뜻을 이어받아, 단순한 학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베데스다대학교는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의 핵심 영성인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4차원의 영성 등의 신학을 현대어로 쉽게 풀어서 가르치고, 이를 오늘날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중이다.

특히 한세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강의하고 한국에서 영산신학원장을 역임한 후 은퇴한 최상준 교수가 학교에 합류해 이러한 정통 순복음 신학 강좌를 이끌며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고 총장은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은 복음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며 "이 신학적 자산을 현대어로 새롭게 정립하여 신학생들이 오순절 영성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데스다대학교는 실제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실천적 역량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미 비즈니스, 음악, IT, 미술 등 대학 내 다른 학과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학생들이 현장 개척에 필요한 다각도의 역량을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고 총장은 "현대 목회 환경에서는 목회자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과 재정 관리, 예배 음악, 미디어 소통 등 다방면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며 "예배 반주를 위한 악기 연주부터 파이낸스, 홈페이지 및 미디어 운영에 이르기까지 개척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 과목들을 열어두어 교회를 스스로 개척하고 섬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목회자를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베데스다대학교는 신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학과들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함께 수학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스포츠팀 등 유기적인 학과 교육체계가 이들의 성장을 탄탄하게 견인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 중에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다가 입학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대학 생활과 채플을 통해 깊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곤 한다.

고 총장은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과 더불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로 나아갈 인재들에게 전문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께 심어주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총장은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MZ세대를 향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순복음적인 영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확신했다. 학구적이고 이론 중심적인 접근만으로는 젊은 세대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어려우며, 오히려 오순절 운동의 핵심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 총장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보다 삶을 나누고 영적 감동을 주는 리더를 원한다"며 "과거 순복음 운동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찬양과 기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오순절적 영성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 시대 청년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진정한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성 교육의 결실은 이미 베데스다대학교의 채플과 캠퍼스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맺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과 농구·축구 등 스포츠팀 선수들이 매주 자율적이면서도 뜨거운 채플과 찬양,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운동부 코치들과 선수들 역시 경기를 준비하며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다져지는 과정을 거친다. 나아가 고 총장은 이러한 영적 부흥과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교회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장학 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고 총장은 "현재 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50% 장학금 혜택을 한국의 뜻 있는 교회들과 연대하여 향후 80%까지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오직 소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베데스다대학교는 고경환 총장의 리더십 아래 순복음의 순수한 복음과 영성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글로벌 영적 요새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정호 선임기자



베데스다대학교 고경환 총장이 학교시설을 돌아 본 후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 가는 기관으로 학교를 성장시켜 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립 50주년 감사예배에서 고경환 총장(오른쪽 2번째)과 샘신 부총장(오른쪽 끝)이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검증된 탁월한 리더십

고경환 목사는 원당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한국 보수교회와 오순절 교단을 이끄는 중견 지도자다.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순복음원당교회를 이끌며 '다 함께 행복한 교회'라는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부흥을 일궈왔다.

에콰도르 하나님의성회 신학교와 미국 영산신학원을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Div.) 및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 이사장,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공동회장,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고양시 덕양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25년 5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제7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어 2026년 5월 열린 제75차 정기총회에서도 총회장직에 연임되며 교단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지난 2025년 1월 한국 보수교회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8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

2026년 1월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대표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되는 등 교계 전반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저서로는 저자의 이민 생활 간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신앙 에세이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해 삶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전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 등이 있다.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수천만 대 일"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allmerits.com
- Office : 323-433-4000
- Fax : 888-870-0802
- 6281 Beach Blvd, Ste 116. Buena Park. CA 90621

아메리츠 파이낸셜
ALLMERITS FINANCIAL
Your Partner in Financial Empowerment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나이지리아서 기독교인 4,216명 피살


ⓒChatGPT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최소 4,216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으며, 이는 평균 86분마다 한 명이 희생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구호단체 '이퀴핑 더 퍼시큐티드(Equipping The Persecuted·ETP)'는 최근 발표한 '나이지리아 미들벨트 위기: 종교 박해와 안보 실패(Crisis in the Middle Belt: Religious Persecution and Security Failure in Nigeria)'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나이지리아에서 기록된 기독교인 사망자는 하루 평균 16.8명에 달한다. ETP는 이 수치가 현장 조사와 목격자 및 생존자 증언, 지역 관계자들의 제보, 후속 검증 등을 토대로 집계한 '문서화된 최소치'라고 설명했다.

ETP는 특히 나이지리아 중부 미들벨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독교 농촌 공동체에 대한 폭력의 상당 부분이 종교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화된 무장 네트워크가 폭력에 관여하고 있으며, 풀라니계 무장 세력이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종교적 박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와 자원, 목축 및 농경지를 둘러싼 갈등, 부족 간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이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TP는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미들벨트 지역에서 반복되는 마을 습격과 교회 방화, 납치, 특정 공동체를 겨냥한 살해, 마을 파괴 및 장기적인 주민 이주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격을 단순히 농민과 목축민 간 충돌이나 정체불명의 무장세력에 의한 공격,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폭력으로만 규정할 경우 대규모 박해가 단순한 개발 문제나 치안 실패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종교적 정체성이 보도에서 빠질 경우 폭력의 종교적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결과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박해가 광범위한 치안 불안이라는 서사 속에 묻혀 그 성격과 규모가 가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TP는 베누에(Benue), 플래토(Plateau), 남부 카두나, 나사라와(Nasarawa), 타라바(Taraba) 등 미들벨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격과 관련해 풀라니계 무장 네트워크를 주요 위협 세력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다만 '풀라니계 무장세력' 또는 '풀라니 민병대'라는 표현이 풀라니족 전체나 민간인에게 집단적 책임을 돌리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ETP 산하 나이지리아 테러 추적기(Nigeria Terror Tracker·NTT)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풀라니계 무장세력과 연계된 행위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는 4,93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코하람과 ISWAP에 의한 사망자는 합계 1,958명이었다. 2026년 같은 기간에는 풀라니계 무장세력 관련 사망자가 786명, 보코하람과 ISWAP에 의한 사망자가 189명으로 집계됐다.

ETP는 NTT와 자체 사망자 등록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된 별개의 자료라며 두 자료를 동일한 지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수치는 확인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최소치이며, 실제 폭력과 강제 이주의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종교자유관측소(Observatory for Religious Freedom in Africa·ORFA)의 자료도 언급했다. ORFA는 문서화된 기독교 민간인 사망 사건 가운데 53%를 풀라니계 무장단체에 의한 것으로 분류했으며, 보코하람과 ISWAP을 합친 비율은 8%로 집계했다고 ETP는 전했다.

ETP는 폭력과 치안 불안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에서 5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강제 이주했으며, 600개 이상의 기독교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주민들이 떠난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경 기자

인니 수라바야서 교회 건축 논란 주민들 "허가증 오류" 공사 반대

미국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수라바야시에서 일부 무슬림 주민들이 행정 서류상의 주소 표기 오류를 이유로 합법적인 교회 건축 공사를 막아서며 지역 내 갈등이 일고 있다고 9월 22일 보도했다.

수라바야시 파칼 지구 치트라랜드 주택 단지에 신축될 예정인 한 교회와 관련해, 인근 두쿠 쿠쿤 지역의 무슬림 주민들은 공식 건축 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건축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교회가 건설되는 실제 위치는 1구역(RT 1)이지만, 시 당국이 발급한 건축 허가증에는 7구역(RT 7)으로 잘못 표기된 행정 착오가 갈등의 발단이 됐다.

현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 계획은 2013년부터 추진됐으나, 지역 사회의 거센 반대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최근 관할 구역 대표의 최종 승인으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은 이번 행정 오류를 빌미로 허가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의 단순 표기 오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르토니 에디 변호사는 최말단 행정 구역에서 발생한 서류상 오류를 구실로 국가의 공식 행정 처분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축 허가증(IMB)이 2006년 종교부 및 내무부 장관 공동 법령에 따라 수라바야 시장이 지역 필요성에 근거해 적법하게 발행한 것임을 강조하며, 관계 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위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교회 건물 자체가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교회가 1구역에 지어지는데 허가증이 7구역으로 발급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으며, 1구역 대표조차 서류 승인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파칼 지구 자이누딘 파나니 책임자와 수라바야 국가통합정치국 툰중 이스완다루 국장 등 시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해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관할 구청과 관계 당국이 주민 및 교회 측과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하자 에리 카하디 수라바야 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카하디 시장은 이번 논란이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탄압이나 반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주택 단지의 초기 개발 계획과 환경 및 교통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공시설 부지 활용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문서를 재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주체인 치트라랜드 수라바야 측도 종교의 자유와 지역 화합을 존중하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설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조사 "Z세대, 기성세대보다 종교인 정체성 강해"

미국 Z세대 성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교적이라고 응답한 Z세대 가운데 일부는 기독교 가르침과 상충할 수 있는 영적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성인 2,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Z세대(18~29세)의 33%가 자신을 '종교적(religious)'이라고 답했다.

이는 세대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X세대(46~61세) 22%, 밀레니얼 세대(30~45세) 19%, 베이비붐 세대(62세 이상) 18% 순이었다.

반면 자신을 '종교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다(neither religious nor spiritual)'고 응답한 비율은 Z세대가 19%로 가장 낮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20%, X세대 21%, 베이비붐 세대는 23%였다.

리비 로드니 해리스 폴 최고전략책임자는 "Z세대는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인 세대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른 활동을 포기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수요일에는 매니페스테이션(manifestation)을 하고 금요일에는 타로를 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종교를 덜 선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Z세대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Z세대는 종교적 정체성뿐 아니라 일부 종교 활동에서도 다른 세대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성경이나 종교 경전을 읽었다고 답한 Z세대는 54%로, 밀레니얼 세대의 5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X세대는 48%, 베이비붐 세대는 43%였다. 정기적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Z세대가 49%로 가장 높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44%, X세대 43%, 베이비붐 세대 42%였다.

반면 혼자 기도하는 활동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75%가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혼자 기도했다고 답했으며, X세대는 72%, Z세대는 67%, 밀레니얼 세대는 65%였다. Z세대의 88%는 기도, 성경 읽기, 종교 예배, 명상이나 의식, 매니페스테이션, 점성술·타로, 에너지 관련 활동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를 정기적으로 실천했다고 응답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84%, X세대 84%, 베이비붐 세대는 82%였다. Z세대에서는 전통적인 종교 활동과 함께 비전통적인 영적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Z세대의 57%는 "미래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매니페스테이션이나 영성 활동에 의지했다"는 데 동의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59%로 Z세대보다 소폭 높았으며, X세대는 46%, 베이비붐 세대는 30%였다. 조사 연구진은 "가장 세속적인 세대로 예상됐던 세대가 이제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Z세대는 오프라인 공동체에 대한 관심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Z세대의 60%는 "과거보다 실제 생활에서 대면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더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여기에는 러닝 모임, 신앙 공동체, 취미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이 포함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59%, X세대 42%, 베이비붐 세대는 32%였다.

또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70%는 "실제 생활에서 대면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에 더 많이 소속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美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하루 458명 세례…137년 역사상 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빌트모어 교회는 연례 야외 세례 행사를 개최했다. ⓒ Biltmore Church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멀티사이트 교회인 빌트모어교회(Biltmore Church)가 하루에 458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137년 교회 역사상 최다 세례 기록을 세웠다.

빌트모어교회는 지난 1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레처(Fletcher)의 한 사유지에서 연례 야외 세례식(Outdoor Baptism)을 개최하고 458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빌트모어교회 데빈 고인스(Devin Goins) 담임목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례식에 대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야기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이야기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 세례식이 열린 장소에는 호수가 있으며, 빌트모어교회의 여러 캠퍼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고인스 목사는 "우리는 매주 주일예배에서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일 년에 한 번 모든 지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제자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들을 함께 축하한다"고 설명했다.

세례식에 앞서 교회 측은 세례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음 순종의 단계를 밟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 플레처까지 직접 운전해 왔다"며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세례가 중요한 순종의 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호수로 옮겨져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자녀의 세례를 계기로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례를 받게 된 가정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빌트모어교회는 이번 행사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후속 제자훈련 기회를 안내했다.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을 권했다.

고인스 목사는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WEA, 창립 180주년 · 중국 선교 220주년 기념 글로벌 연합 집회 개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계화인기독교연맹(WCA)과 세계복음연맹(WEA)이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선교학자, 기독교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연합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9월 25일 보도했다. 지난 23일 열린 이번 집회는 세계복음연맹 창립 180주년과 함께 1807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입국을 기점으로 오는 2027년에 맞이하는 중국 개신교 선교 2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WCA 사무총장 에스겔 탄(Ezekiel Tan) 목사ⓒ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이번 행사는 '유산에서 지평으로: 개척자들에게 배우고 2033년을 향해 동원하다'라는 주제 아래 복음주의 연합의 역사적 유산과 중국 기독교 선교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글로벌 선교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WCA 사무국인 엔아르케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으며, 에스겔 탄 W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글로벌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초기 선교사 후손들의 발제를 이끌었다.

보트루스 만수르 세계복음연맹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브라이언 스틸러 WEA 글로벌 대사는 1960년대 전 세계 9000만 명 수준이었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2025년 현재 6500만 명으로 성장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스틸러 대사는 복음주의를 백인 북미권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세계복음연맹이 개별 교회나 교단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복음주의의 입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회 중반부에서는 중국 선교의 초석을 놓은 로버트 모리슨,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엘 넬슨 벨 박사의 사역과 헌신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홍콩 침례대학교 앤드루 로크 박사는 중국 본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 동인도회사 번역관으로 체류하며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 중영 사전을 편찬한 업적을 소개했다. 로크 박사는 모리슨의 사역 기간 중 세례를 받은 중국인은 10명에 불과했으나, 그의 활동이 후대 선교사들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드슨 테일러의 고손자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목사는 증조부의 사역을 열정, 실천, 공급, 동역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해 발표했다. 중국인들 속에 동화되어 현지 방언을 익히고 중국 내지 선교회(CIM) 선교사들에게 중국식 복장을 입도록 한 현지화 전략이 중국 선교 확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이자 의료선교사였던 벨 박사의 헌신은 손녀인 앤 그레이엄 로츠 박사와 증손녀 레이첼-루스 로츠 라이트를 통해 재조명됐다. 로츠 박사는 조부모가 1916년 중국 칭장푸(현 화이안)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우고 1941년 추방될 때까지 25년간 의료사역과 복음 전파에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증손녀 레이첼-루스는 자녀를 잃는 아픔 속에서도 중국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증조부모의 삶을 기리며 중국 교회와 세계복음연맹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인도했다.

만수르 WEA 사무총장은 폐막 기조연설을 통해 오는 2033년 오순절 20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선교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WEA 총회의 '2033년까지 모두에게 복음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화인기독교연맹과의 자원 및 전략 공유, 글로벌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교회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 교회가 단순한 선교 대상이 아닌 오늘날 글로벌 선교를 이끄는 핵심 파송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전 NFL 선수 조던 시플리, 목장 화재 사고서 기적적 생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식축구(NFL) 출신의 스타 와이드 리시버 조던 시플리가 자신의 텍사스 목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중증 화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실을 공개하며 신앙의 힘을 고백했다고 9월 23일 보도했다.


조던 시플리. ⓒYouTube/CBS Austin

시플리는 최근 오스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기독교 선교 단체 행사에 참석해 지난 1월 텍사스주 버넷 인근 목장에서 겪은 끔찍한 화재 사고의 전말을 밝혔다. 텍사스 대학 롱혼스 역사상 최고의 리시버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그는 개간 작업 중 타고 있던 불도저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의 20% 이상에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었다.

휴스턴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불도저 문이 고장 나면서 시플리는 불길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공포 속에서 문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사고 현장에서 45분을 걸어 동료를 만난 그는 지역 병원을 거쳐 오스틴의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오스틴 병원 의료진은 팔과 다리, 손,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그에게 수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과 최소 3개월 이상의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플리는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대형 수술이나 피부 이식 없이 단 11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아내 써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화상 전문가와 의료진조차 이러한 기적적 생존과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신체적인 극복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목장 화재가 남긴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당했다. 시플리는 퇴원 후 두 달 동안 극심한 악몽에 시달렸으며, 아내 역시 폐 소공포증을 겪었다. 이날 행사에 동석한 전 텍사스 대학 쿼터백 케이스 맥코이는 사고 직후 시플리 가족이 겪은 두려움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가 놀라운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아침, 시플리는 유치원에 가던 다섯 살 아들 스웨이드로부터 천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불길에 갇힌 절체절명의 순간 남겨질 아내와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을 떠올리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현재 심하게 화상을 입었던 두 손은 거의 완치되었고 급감했던 체중도 정상으로 회복 중이다. 시플리는 화재 사고 이후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과 신앙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과 일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신의 섭리와 긍휼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I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목사가 된 가수, 허영란 찬양 간증 집회



80년대 '날개' 대중가요로 유명했던 허영란 가수가 목사가 되어 라크라센타 어노인팅교회(신경섭 목사)에서 10월 31일 토요일 아침 11시 찬양 간증 집회에 선다.

5주 연속 1위, 6개의 상을 수상한 날개는 조은파 작사/작곡으로 일반 대중 가요이지만 복음성가 가사 내용으로 유명하다.

허영란 목사는 '날개'를 지난 2021년 리메이크하여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집회를 준비 중인 어노인팅교회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라는 노랫말이 큰 힘을 준다"며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들이 대중가요 작사·작곡가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조은파 씨와 허영란 목사의 찬양·간증을 통해 복음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은 무료이며, 식사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224.622.9183
mcc3694@yahoo.com

장학금 기금 마련 남가주교협 골프대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 이하 남가주교협)와 이사회(이사장 김향로 장로)가 9월 28일 발렌시아 샌드캐년 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인 크리스천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는 이득표 장로의 인도로 최순길 목사가 기도하고 김은목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최영봉 목사의 광고와 전익환 프로의 경기 안내가 진행됐으며, 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대회 후에는 폐회예배와 만찬, 시상식이 이어졌다. 김용길 집사와 제이슨 정 집사가 챔피언에 올랐다.

김향로 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모인 장학금이 한인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남가주교협 이사회는 지난해 차세대 목회자 15명에게 총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추천을 원하는 담임목사는 추천서를 이메일(youngbchoe@gmail.com)로 보낼 수 있다.

김민선 기자

대북 선교 성직자들, 北에 의한 테러·납치 이어져

→1면 기사 〈北, 성직자 테러 · 납치〉에 이어서

이후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을 거쳐 베이징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의 비밀감옥으로 옮겨져 약 1년간 추가 구금과 고통스러운 조사를 받았다.

그해 8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7개월 만에 평양-베이징 항공노선이 재개된 시점에 맞춰 북한은 이송 작전을 감행했다. 공항 이용객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배용주를 전신 깁스 상태로 휠체어에 태워 환자로 위장시킨 뒤, 베이징발 평양행 고려 항공편으로 강제로 북송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북송된 배용주는 결국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 선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국경 일대에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납치를 서슴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11년 8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김창환 목사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살해됐다. 그는 과거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문건을 북한으로 들여보낸 전력이 있었다. 사건 몇 달 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016년 4월,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장백교회의 한충렬 담임목사가 북한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채 야산에서 발견됐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목회자가 영토 내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중국 당국은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북·중 국경의 대북 선교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다.

1995년 3월, 한국인 안승운 목사가 중국 지린성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평양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범인 북한 요원 이경춘은 중국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데 그친 뒤 만기 출소하여 북한으로 추방되었으나, 안승운 목사는 지금까지도 송환되지 못했다.

또한 2014년 북한 감옥에 수감되었던 조선족 장문석 집사는 무려 만 11년이 지난 2025년 11월에야 겨우 중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과 비밀감옥 운영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은 국제법과 사법주권을 스스로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위대한 지루함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김신회 작가의 책, 『꾸준한 행복』에 나오는 첫 번째 글의 제목이 〈위대한 지루함〉 입니다. 지루함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지루함이 위대하다'는 작가의 표현이 제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루해져도 휴대전화를 집어 듭니다. 채널을 바꿉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식당, 새로운 책,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지루함은 피해야 할 적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지루함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지루함 자체'라기보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면 삶은 오히려 얕아집니다. 피상적이 됩니다. 반대로 반복과 훈련의 지루함을 견디면 삶은 깊어집니다.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지루함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루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위대함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면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루함을 견디며 한 우물을 파면 삶은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선한 잠재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게 한길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같은 음계를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골프 선수는 같은 스윙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수영 선수는 같은 레인을 수천 번 오갑니다. 사진작가는 한 장면을 찍기 위해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화가는 같은 대상을 오래 바라봅니다. 작가는 매일 아침 같은 책상에 앉습니다. 목회자는 같은 성경을 펼치고,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반복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을 통해 자랍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드러난 탁월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을 만들어 낸 무대 뒤의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승의 순간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지루함을 견뎌 낸 반복된 훈련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진 이전에 찍힌 수천 장의 평범한 사진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책을 봅니다. 하지만 박수도 인정도 없는 수백 번의 아침을 홀로 견딘 작가의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성품을 낳습니다. 성품은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 반복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말씀 묵상의 비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주야로, 다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의 역설
반복이 만드는 탁월함
습관이 만드는 사람
반복에 진실함을 더하다
꾸준함이 만드는 위대함

어떤 진리는 한 번에 배울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머리에 머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에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반복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빠진 채 같은 행동만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성 훈련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진실함이란 익숙한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익숙한 것 앞에서 새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첼리스트 요요 마(Yo-Yo Ma)는 "초심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어떤 연주를 했든 오늘의 연주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계적인 반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마합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오랫동안 해 온 일을 초심을 품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성숙의 비밀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익숙함이 경이로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강렬함보다 강합니다. 많은 사람은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합니다. 위대한 삶은 가끔 찾아오는 강렬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는 꾸준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지루함이 위대한 반복을 만날 때 빛을 발합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깊은 심심함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활동에서 벗어난 깊은 심심함은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창조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위대한 지루함과 깊은 심심함을 친구 삼아, 조용히 하던 일을 새 마음으로 반복합니다.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날들을 충실하게 반복하는 동안 조용히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위대한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에게 위대한 깊이가 선물됩니다.

황모세 칼럼

베델교회에서의 첫 주일을 보내며



황 모 세 목사
베델교회

드디어 그날입니다. 베델교회에서의 첫 주일! 토요일 저녁부터 아이들에게 내일의 일정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주의 사항(?)을 단단히 일러 주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함께 인사드리는 날이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 맞춰 가려면 무엇보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이 1차 관건입니다. 가족 모두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새날을 깨우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6시에 있는 예배 전 목회자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들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홀로 깜깜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길을 지나 비전주차장으로 들어서니 벌써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셔틀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 주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차량 봉사를 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리라 다짐했기에, 마치 익숙한 길인 것처럼 목회자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도 이미와 계신 목사님들이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모를 때는 앞사람을 따라가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따라 기도회장소인 코트야드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역시 베델교회!'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끝나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커피 향을 따라 카페로 들어섭니다. 이곳에도 이미 모든 섬김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환한 미소로 건네는 인사에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1부 예배.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강단에 섭니다. 강단 위에서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들을 바라보니 앞으로 함께하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가 가슴 깊이 밀려옵니다. 1부에서 시작된 인사는 4부 예삶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전주차장에서 처음 맡았던 섬김의 향기가 코트야드의 텐트 아래에도, 교육부의 여러 부서에도, 주방과 카페에도, 예배실 구석구석에도 가득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손길이 또 한 번의 주일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에 취해 보낸 베델교회에서의 첫 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낯선 사람을 만난 날도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만남들이 마음에는 그리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낯선 얼굴들 속에서 낯설지 않은 한 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베델교회에서의 낯선 첫 주일, 낯설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6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3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0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종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목동 칼럼

가을 맞이 소고(小考)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가을은 가을이란 말 속에 있다" 김대규 시인의 울림이 있는 고백적 시구(詩句)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면, 가을이라는 말 속에 가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일 것이다.

아직 나뭇잎이 제대로 옷을 갈아입지 못했어도, 한낮의 햇볕에 여름의 열기가 가득해도, 누군가 "이제 가을인가 봐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느새 가을이 스며든다. '가을'이라는 말을 입술에 올리는 순간, 바람은 조금 서늘해지고, 하늘은 조금 높아지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련함이 스며든다.

봄이 시작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결실과 추억의 계절이다. 봄에는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지만, 가을에는 결실을 준비하며 지나온 것을 돌아본다. 그래서 사람은 가을이 되면 조금은 수도자가 되고, 조금은 철학자가 되고, 조금은 시인이 된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젊은 날에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 가기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면 얼마나 빨리 왔는가보다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보다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앞서 시인은 가을에 어느새 깊어진 자신의 성찰을 고백한다. "주여! 라고 하지 않아도 가을엔 생각이 깊어진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기도처럼 깊어진다. 여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가을에는 들린다. 한 마리 벌레의 울음소리에 세상이 들려오고, 잊혀졌던 일들이 낙엽 한 잎에 더 깊이 잊힌다. 이는 가을에 우리도 모르게 지혜의 걸인이 되어 문을 두드릴 때, 외로움이 얼굴을 내밀고 불쑥 전해준 "삶은 그렇게 아픈 거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불쑥 전해준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릴케의 〈가을날〉의 고백을 상기하게 된다. 그는 위대했던 여름을 지나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는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매는 고독한 가을의 사람'에 자신을 이입하였다.

그렇다. 가을은 결실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열매와 함께 여전히 설익은 인간 고독의 실체를 보여주는 계절인 것이다.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빈자리라면,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마련된 빈자리일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가?" 시편의 기도도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 우리의 날을 센다는 것은 단순히 남은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온 날의 의미를 헤아리고,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이다.

가을의 나무도 그것을 가르쳐 준다. 봄부터 여름까지 잎을 키웠던 나무는 가을이 오면 하나씩 내려놓는다. 한없이 내려놓다가 결국에는 나목(裸木)이 된다. 참 이상하다.

나무는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봄을 위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시작이 바로 가을의 내려놓음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젊은 날에는 얻는 법을 배웠다면 인생의 가을에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움도, 경쟁도, 오래 품었던 섭섭함도,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고집도 내려놓아야 한다.

흔히들 봄을 출생으로부터 20대까지로 생각한다. 여름을 30대~40대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가을은 50대~60대일 것이요, 겨울은 70대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충만한 계절 한가운데 서 있는가? 아시는 대로 사랑에도, 믿음에도, 한 사람이 성숙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열매를 익혀 가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일 것이다. 내가 지나온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에서 계속 자라날 복음의 씨앗이 있는가?

가을의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가지에 맺힌 열매로 지나온 봄과 여름을 증명한다.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우리를 말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가을의 문턱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어 보자.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고, 오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어느 조용한 저녁에는 지혜의 걸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 고독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을을 만나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열매를 익혀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하여 가을날, 우리들 지혜의 걸인이 되어 문을 두드릴 때, 이제는 주께서 얼굴을 내밀고 "삶은 그렇게 익어가는 거야" 환히 말씀하시는 가을을 맞이하길 겸손히 소망해 본다.

강태광 칼럼

성도여! 주적(主敵)과 싸워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25사단 지뢰 사고로 대대장 중령과 중사가 발목을 잃었다. 누군가의 아빠요, 남편일 대대장의 부상에 맘이 찢어진다.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가 흘릴 피눈물에 그려진다.

부상당한 중사는 결혼이나 했을까? 젊은 그가 맞이할 앞날이 걱정이다. 국방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분노한다. 왜 함께 분노하지 못할까? 왜 주적을 인정하지 못할까? 주적은 초점이고 과녁인데.

말라기 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왕조가 등장한다. 마카비 혁명은 기원전 167년경 셀레우코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과 종교적 탄압에 맞선 독립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해 세워진 하스몬 왕조는 약 80년간 유대를 다스렸다.

유대를 지배했던 셀류쿠스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에게 제사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봉기했고 제국군을 물리치고 성전 청결한 전쟁이 마카비혁명이다.

이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조가 BC 164년부터 유대를 통치했다. 솔로몬 후 첫 통일왕조다. 그런데 신약이나 예수님은 마카비혁명이나 하스몬왕조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 흔적은 요한복음 8장에 성전 청결을 기념하는 수전절이 전부다. 그들은 예수님과 신약성경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마카비 혁명은 애국운동, 정화운동, 순결운동 등등은 일면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국 팔이와 종교 장사와 그들의 탐욕으로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 왕권과 제사장직을 독점했다. 그래서 그들은 초라한 실패자가 되었다. 그들은 초점 오류로 실패했다.

초점 오류(Focusing Illusion)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대니얼 카너먼은 잘못된 초점으로 본질을 망치는 인지 오류를 지적했다. 인간이 특정 정보나 조건에 강하게 주목하면, 균형과 본질을 놓친다. 초점 오류로 망하는 인생이 많다.

다윗이 아버지 부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았다. 분노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하자 큰형 엘리압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돌보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을 안다"라고 다윗을 책망했다. 형은 악담으로 시비를 걸었다.

가시 돋친 큰형의 책망과 악담을 듣고도 다윗은 큰형과 싸우지 않았다. 곧장 골리앗을 향했다. 다윗은 큰형의 악담을 듣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형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다. 그는 적군 골리앗을 봤다. 다윗은 적군이 누구인지 알았다.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를 알았다.

다윗은 초점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큰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다. 오직 주적 골리앗을 향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윗은 역사상 가장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의 승자가 되었다. 다윗의 승리는 기적 같은 승리였다. 지금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 교회와 성도, 목회자는 영적 싸움 중이다. 사탄의 꾐에 빠져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싸우지 말자!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 일꾼에게 시비 거는 사람과도 싸우지 말자! 그들은 어정쩡하고 찌질한 엘리압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보자! 비록 국방부는 주적에 헷갈려도 성도나 교회는 주적에 헷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몰트만, 희망의 신학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의장 하인리히 베드포드-스트롬(Heinrich Bedford-Strohm) 주교가 28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위르겐 몰트만 탄생 백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열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공신학의 과제와 실천적 에큐메니컬 사명을 피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버클리공공신학포럼 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크리스찬아카데미, 칼바르트와공공신학센터, 한신대 종교와과학센터(CRS), 한국민중신학회, CBS 기독교방송 등이 협력하여 '공공신학,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생물학'이라는 주제로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기독교회관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신학대학원에서 전개됐다.

학술대회 첫날 WCC 중앙위원회 의장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기조강연에서 "오랫동안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학을 가르치고 공공신학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해 왔다"라며 "그러나 독일 개신교 총주교(총위장)로 12년 동안 사목하면서 비로소 공공신학이 이론을 넘어 교회의 실천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부딪혀야 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단체사진 촬영 모습. ⓒ노형구 기자

이어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대학이라는 상아탑 안에서 출발한 신학적 사유가 총주교로서의 목회적 경험과 WCC 세계교회 리더십이라는 실천적 현장을 거치며 비로소 에큐메니컬 차원의 공공신학으로 만개할 수 있었다"라며 "교회 현장에서 마주친 구체적인 부딪힘이야말로 신학적 공공성을 실천적으로 확장해 준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했다.

이어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교회가 다루어야 할 시민사회의 공공 영역이 전 지구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짚었다.

그는 "시민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인류가 마주한 자연생태계와 첨단 기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라고 했다.

또한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다양한 공공의 영역 속으로 자신의 신학적 성찰을 깊이 파고들게 해야 한다"라며 "신학이 성벽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 전체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신학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때 단순한 도덕적 당위나 설교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낸 설득력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며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장기간의 분열과 갈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위기로, 공공신학은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예언자적 대화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세계는 분열과 대립,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오랜 고통과 분리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신학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피조세계의 신음에 응답하기 위해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희망의 신학으로 역사와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신학적 전통을 다채로운 현대 사회의 질문들과 연결하여,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공공적 응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베드포드-스트롬 의장은 한국이라는 역동적인 신학적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적 교류에 깊은 기대를 표명하며, 한국 교회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감당해 온 역사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노형구 기자

美 복음주의언론협회, 명칭 변경안… '복음주의' 삭제 놓고 논쟁

미국 복음주의언론협회(EPA)가 단체명을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스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복음주의(Evangelical)'를 '기독교(Christian)'로 바꾸는 대목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왔으며, 정체성 훼손 우려와 소통 개선 필요성이 엇갈렸다. 이사회는 신학은 여전히 복음주의로 남는다고 강조했고, 최종 결정은 회원 투표에 달려 있다.

75년 이상 기독교 출판인·편집자·작가·언론인들의 단체로 활동해 온 복음주의언론협회(Evangelical Press Association, EPA)가 단체명을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스 네트워크(Christian Communicators Network)'로 변경하는 이사회 제안을 놓고 회원 투표에 들어갔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Christian Daily International)이 2026년 9월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투표는 온라인 화상 회의를 거친 뒤 9월 15일 시작됐으며, 보안이 적용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3주간, 즉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제안된 명칭은 기존 단체명의 모든 단어를 바꾸는 내용이지만,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부분은 '복음주의(Evangelical)'를 '기독교(Christian)'로 바꾸는 대목이었다. EPA가 공개한 회의 채팅 기록에는 변경을 지지하는 의견과 이사회의 선택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담겼다.

회원들이 표결하는 이사회 결의안은 "복음주의언론협회 회원은 단체의 법적·공적 명칭을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스 네트워크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이사회는 관련 문서, 등록, 브랜드,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갱신할 권한을 갖게 된다.

■ "우리의 신학은 여전히 복음주의"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번 권고안이 기도와 비전 캐스팅 수련회(Vision Casting Retreat), 언론 환경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회원 피드백을 포함한 1년간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를 마케팅이 아닌 사명에 뿌리를 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단체의 신앙고백문(Statement of Faith), 윤리강령, 시상 프로그램, 윤리적 저널리즘에 대한 헌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우리의 신학은 여전히 복음주의로 남는다"며 "다만 공적 정체성이 보다 분명하게 기독교적으로 표현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신학적 의미를 가리는 정치적·문화적 의미를 점점 더 많이 띠게 된 반면, '기독교(Christian)'는 전 세계적으로 이해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Press(언론)'는 인쇄 및 전통 매체를 연상시키지만 'Communicators(커뮤니케이터)'는 언론인뿐 아니라 팟캐스터, 디지털 편집자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괄한다고 밝혔다.

■ 질문은 허용됐으나 토론은 없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한 질문은 허용됐지만 공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참석자는 로버트 회의규칙(Robert's Rules of Order)에 따르면 안건 상정 후 찬반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질문만 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표 전에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의견을 들을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세 번째 참석자는 회원 발언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와 전체 회원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반면 이 방식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이처럼 큰 규모의 공개 토론은 회의를 4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안했고, 다른 참석자는 이사회가 정관을 따랐다는 점을 지지했다.

■ '복음주의' 냐 '기독교' 냐

가장 지속적인 반대는 제안된 명칭의 첫 단어에 집중됐다. 한 참석자는 해당 용어를 삭제하면 '복음주의'가 정치적 꼬리표라는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참석자는 이런 변화를 택한 단체들이 성경의 권위, 결혼, 성(性)에 관한 역사적 복음주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사회를 "원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단체가 정체성 문제를 겪는 것인지 소통 문제를 겪는 것인지 물으며, 명칭을 넓히면 전미종교방송인협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같은 단체와 영역이 겹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기독교'라는 표현 역시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 같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단체가 향후 성과 젠더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사안은 교리 선언문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

제안에 찬성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명칭 변경이 단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성공회 신자(Anglicans)처럼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신앙고백문에 동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단 온라인 매거진 대표는 18~25세의 청년 기고자들이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명칭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잠재적 회원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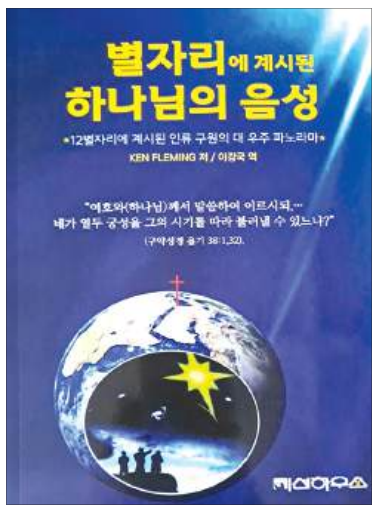
■ 최종 결정은 회원 몫

참석자들은 '복음주의'라는 단어 외에도 제안된 명칭의 다른 단어들과 명칭 전체에 대한 의견을 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사회는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이사회는 참석자들의 솔직한 의견과 질문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반응이 단체의 미래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최종 결정은 회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별자리에 수놓은 하나님의 복음 드라마

열두 가지 별자리에 새겨놓은 인류 구원의 파노라마?



별자리에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

켄 플레밍 | 이강국 역
미션하우스 | 288쪽

"네가 열두 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욥 38:32)

이 책은 광활한 우주에
펼쳐진, 별자리에 계시된
인류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또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보존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 성경대학교에서 통신 과정 교재를 집필하고 50여 년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로 섬긴 켄 플레밍은 『별자리에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in the Stars』이라는 책을 통해, 굉장히 난해하며 신비롭고 믿기 어렵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수긍을 일으키는 독특한 주장을 한다.

저자는 12개 별자리에 인류 구원의 대우주 파노라마가 계시돼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그 위대한 예언적 사건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하고 감독하셔서, 광활한 밤하늘 공간에 수많은 '스타(stars)' 배우를 출연시켜 지구라는 별에 사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영하는 '인류 구원의 대 우주 드라마'입니다(34-35쪽)."

플레밍은 자신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입증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실 때 친히 말씀하신 '징조'의 의미(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플레밍은 여기서 '징조와 절기'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사건과 시기"라고 설명했다(30p). '징조'는 표적과 같은 뜻을 지니고, '절기'는 특정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때를 밝히시기 위함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별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성경의 증언(시 147: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물론 나라와 민족에 따라 별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플레밍은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고, 그것을 각각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 인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스칸디나비아, 중앙아메리카 등 어디서나 고대인의 별자리 지식을 살펴보면, 저마다 같은 별자리가 식별되고 같거나 유사한 의미의 이름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47쪽).

고대인들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 모두 하늘의 별자리에 관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고, 이는 그들이 점성술로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별의 이름대로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마 2:1-12).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마 2:2)".

플레밍은 박사들이 본 별이 책에서 설명한 별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이 본 별이 특별한 '계시'를 언어로 알아듣도록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별을 따라 경배하러 먼 길을 떠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플레밍이 주장하고 있는 별자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징조와 절기를 연구하던 학자들이었다면, 영광의 빛을 보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플레밍에 따르면 열두 개의 별자리에는 각각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죗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면류관을 쓰신 어린양 주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호하시는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 등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는 각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고대 이름과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분석하면서, 자기주장을 견고하게 세워나간다.



▲ⓒ픽사베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보인지, 혹은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할 수 있는 '드라마'인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 오웬이 〈성경신학〉에서 우상숭배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고대 문서를 활용하며 보여주는 대단한 상상력과 결단력을 생각하면 플레밍의 도전, 즉 '우리는 별자리에 관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의 열정적 연구 정신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독자가 플레밍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면, 밤하늘의 별을 다시 올려다볼 것이다. 특별계시가 있기 전, 기록된 성경이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 전, 이미 하나님은 밤하늘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서사를 기록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이다. 또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듬어 찾지 않고 명확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롭게 담긴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韓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학교
Olive Tree Christian Academy
신앙과 학업,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올리브트리 비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세웁니다."
올리브트리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문적 역량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
책임감 있고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갑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자기주도 학습 & 창의 융합 교육
차세대 리더십 양성
347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626-376-3955
uccshine@gmail.com
www. launitedchurch.com/otca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부서진 아름다움: 크리스천 예술의 적정률 (5)

현대 예술 맞서 '환대의 메커니즘' 회복하는 기독교 작가들

'부서진 미'를 위한 변론 5: 부서진 세상에 깃든 구속의 아름다움

지금까지 필자는 허무주의적 색채와 세속주의적 열망으로 점철된 현대 예술의 파편화된 양상을 직시하고, 이를 기독교 신앙의 구속적 시선과 교차시킴으로써 '부서진 아름다움(Broken Beauty)'이 지닌 미학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취약성과 피조 세계의 유한성을 은폐하지 않는 이 '부서진 아름다움'은 동시대 문화가 앓고 있는 영적 소외를 극복할 성육신적 대안으로 기능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성육신적 예술의 성취를 보다 뚜렷이 밝히기 위해, 주요 이론가들의 담론을 가치 체계의 중심으로 삼아 그 논지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제러미 벡비(Jeremy S. Begbie)는 실재의 비극을 은폐하고 감상적 만족을 도모하는 '성급한 조화'와 정서적 병리학을 해부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침묵, 그리고 부활을 입체음향적으로 응시하는 '부활 3일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십자가의 참혹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승화시키는 '역감상주의(Countersentimentality)'적 미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둘째, E. 존 월포드(E. John Walford)는 고전적 이상주의가 강요해 온 박제된 아름다움의 허구성을 고발하며, 피조 세계의 한계와 유한성을 정직하게 고찰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 전통을 변론했다.

그는 영웅이나 이상화된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유한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 즉 약함과 죽음을 예술의 중심에 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렘브란트처럼 삶의 거친 부분을 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안타까움과 공감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실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시선에 동참하는 성육신적 통로임을 제시했다.

셋째, 마코토 후지무라(Makoto Fujimura)는 부서진 도자기의 균열을 황금으로 메워 이전보다 더 고귀한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일본의 '킨츠기(Kintsugi)' 전통을 구속적 예술의 탁월한 예로 삼았다.

그는 인간과 세상의 깨어짐이 단순한 영적 파멸이나 결핍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 주님이신 하나님의 구속적 손길을 통과함으로써 이전의 온전함을 능가하는 존재론적 도약이자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신비인 '카이노스(Kainos)'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고든 퍼글리(Gordon Fuglie)는 '부서진 아름다움' 전시를 진행하며, 동시대의 역사적 비극과 세속주의적 절망 아래 왜곡되고 파편화돼 온 신체성의 여러 층위를 추적했다.

그는 상처 입고 취약한 신체야말로 역설적으로 신성과 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을 다양한 기독교 미술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입증하고, 시어도어 프레스콧과 함께 훼손된 신체들이란 다름 아닌 우리 주위에 현존하는 거룩한 대상인 '이웃'임을 역설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허무주의적 파괴와 소비 지향적 '키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미술은 고도의 개념주의적 경향, 냉소와 조롱으로 무장한 키치, 그리고 대중을 충격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 극단적인 '위반적(transgressive) 행위'마저 서슴지 않는다.

최근에는 디지털 가상 공간과 생성형 AI 부상으로 인간의 물리적 신체가 소멸해 가는 '탈육체화(disembodiment)' 경향마저 부쩍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의 피로감은 날로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위기에 맞서 기독교 작가들이 일궈낸 미술사적 '윤리적 전회(Ethical Turn)'이다.

감상주의적 경향에선 작품이 타인과 연결되는 진실한 통로가 아니라, 자아를 충족시키는 소비재로 작용한다. 자기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장밋빛 환상을 구축하기도 한다. 피상성과 과도한 감미로움, 인위적인 감정의 조작이 이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존 월포드, 마코토 후지무라, 퍼글리와 프레스콧의 시도는 인체를 단순한 생리적 껍데기나 소비재로 보지 않고 "우리의 감각에 제시된 가장 거룩한 대상, 즉 나의 이웃"으로 복원한다. 이는 타인의 신체를 관음증적으로 소비하거나 해부학적 기호로 분해하던 반윤리적 작가들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용자로 하여금 캔버스 안의 훼손된 타자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환대의 메커니즘'을 회복시킴으로써, 기독교 작가들은 '윤리적 전회'를 이룩한다. 이들은 인간의 깨어짐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 온전한 형상의 깨어짐에 대한 주목, 긍휼, 회복의 소망 등이 곁들여져 있는 셈이다.

이처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신체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예술적 실천은 신체가 지닌 고유한 물질적 실재감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인체 미술의 아날로그적 물질성과 '부서진 신체'의 미학은, 단순히 과거 전통의 단순 복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기술 관료주의와 포스트휴먼 담론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설적인 대안으로 다가오리라 사료된다.

상처 입고 부서진 물리적 신체야말로 구원의 성육신적 통로임을 주장하는 '몸의 미학'은 오늘날 디지털 문명사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전망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예술이 온전한 성육신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념적 '아이디어'에 매몰되거나 주관적 의식에 안주하기보다 인간의 취약성과 한계를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후지무라가 강조하듯 우리의 '만들기'는 항상 부서지고 파편화된 세상의 맥락에서 일어난다. 예술가의 역할은 고통과 고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거기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선함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관계를 맺으셨던 예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며,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고후 5:17)로 바라보는 미학적인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가 간파했듯, 예술에서의 진리는 단순한 '정확한 복제'가 아니라 현실의 충만함과 그 의미를 꿰뚫어 보는 예술가의 풍성한 통찰력에 있다. 우리가 작품을 우아함과 꾸밈의 정도로만 감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노년의 어머니를 주제로 한 뒤러의 정직한 기록처럼, 진정한 미는 달콤한 감상주의가 아닌 정직한 진실함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이 겪는 피할 수 없는 무너짐과 쇠약함을 공감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예술적 응시는 삶뿐 아니라 죽음을, 기쁨뿐 아니라 공포를, 그리고 우리가 추하다고 부르는 것까지 포용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체현한다.

예술가는 부서진 사회적 파편들을 모아 은혜의 모자이크를 만드는 '평화 구축자(peacemaker)'로 부름받았다. 예술적 실천이 단순히 개인의 영적 위안에 머물지 않고 손상된 타자를 자신의 캔버스로 초대해 '환대의 장'을 마련할 때, 기독교 예술은 세상의 깨어짐을 구속하는 성육신적 증거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다.

'부서진 아름다움'을 매개로 손상된 타자를 포용하고 아날로그적 신체성과 환대에 주목할 때, 기독교 예술가는 상실과 단절로 파편화된 현대 디지털 문명을 구속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부서짐의 균열 속에서 곧게 뻗어 나오는 아름다움의 서광(曙光)을 드러냄으로써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구속적 소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팀 로울리, 나를 옮겨주세요, 2002. 팀 로울리의 딸을 모티브로 한 그림.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을 평범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긍휼의 시선을 옹호하는 작품이다.



▲렘브란트, 세 개의 십자가, 드라이포인트, 양피지에 인쇄, 38.1x43.8cm, 1653,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북한군 포로 한국 입국 환영… 그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야


제36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강동완 교수(왼쪽)가 한 청년과 함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들의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28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자유 대한민국 입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두 북한 청년의 자유로운 선택을 환영한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북인협은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청년 두 명이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두 청년이 스스로 대한민국행을 선택했고 그 자유의사가 존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는 아직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 분쟁지역 전문 PD는 오랜 노력 끝에 2025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서 두 청년을 직접 만났다"며 "두 사람은 그에게 '한국으로 꼭 데려가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한국의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친필편지에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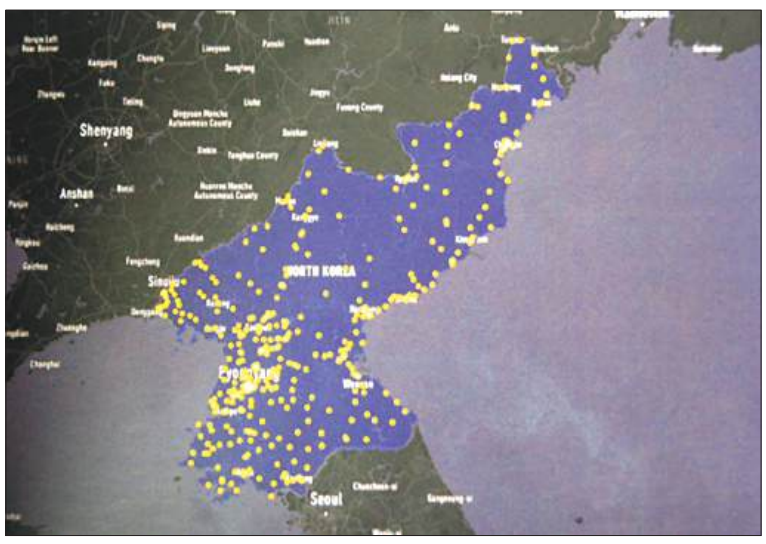
북인협은 지난해 10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를 마친 뒤 '북한군포로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를 맡은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를 비롯한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편지와 서명운동,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으며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관계기관에 두 청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과정에서도 현지 NGO와 협력하며 두 청년의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폈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 뒤에는 수많은 시민과 후원자들이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구출 국민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교계와 시민사회는 두 청년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협력도 중요했다"며 "2022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enter for Civil Liberties, CCL)를 비롯해 국제인권보호위원회(IHRC), 자유민주연맹(LDL) 등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관계기관은 두 청년의 의사를 확인하고 안전을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인협은 지난 7월 27일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역할 및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와 북한의 군사적 개입에 관한 기록·조사와 책임규명에 협력하는 한편,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역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함께 지켜나가기로 했다. 북인협은 "우리는 두 청년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대한민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협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에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한다"며 "전쟁 중에도 두 청년을 단순한 포로교환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생명, 안전을 존중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보편적 원칙을 실천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연대의 토대에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가 있으며,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국제연대를 강화하며 북한의 연좌제 폐지를 위해 행동한다는 그 약속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은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북한에 남아 있을 두 청년의 가족"이라며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지가 조사·추방·구금되거나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인의 선택을 가족에게까지 책임 지우는 연좌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北 군부 인사 변화 뒤 김주애 부각 "변화의 때 북한선교 준비해야"



CSIS가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북한 내에 형성된 장마당의 분포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와 북한내륙선교회(North Korea Inland Mission, NIM)를 섬기는 임현석 선교사는 최근 '9월 복음적 통일과 북한선교 기도소식'을 통해 최근 북한의 내부 상황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전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북한 선교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기도소식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북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이다. 기도편지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 군부 안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군부 내 부패 척결과 함께 정권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북한 지도부가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군 수뇌부에 상당한 인사 변화를 단행했다. 지난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국방상이 교체되고 군 핵심 인사들의 직무가 조정됐으며, 북한 군 총정치국 내부의 부패 문제와 조직 개편 움직임도 포착됐다. 다만 기도편지가 언급한 상반기 '대대적인 숙청'의 구체적인 범위와 성격은 공개된 북한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

기도편지는 이 같은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지도층의 인적 기반 약화와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봤다. 또 김주애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최근 김주애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정치 관련 공개활동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임 선교사는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 내부적으로 지도층 인력 약화와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을 추측하게 만든다"며 북한 내부의 변화를 단순한 권력 강화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식량 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전해졌다. 기도소식에 따르면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경작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농작물 생육 상태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가을철 큰 기상 변수가 없다면 수확량도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9월에는 정권수립일과 추석을 맞아 공급 물량이 늘면서 장마당 곡물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내부 변화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 국제 분쟁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다뤄지고 있다. 미중 양국이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기도편지는 이 같은 미중 간 대화의 흐름이 한반도 문제와 북한을 둘러싼 대화의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북한 역시 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과정과 시점을 면밀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도편지는 이러한 국제정세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살피면서 교회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기도편지는 "한반도 내부와 주변 상황은 언제나 위기와 변화로 가득하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한의 개방과 교류 확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원기자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 운동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 대행진

함께 참여해 주세요!

10월 10일 토요일 새벽7시

예수사랑 십자가 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장소

Griffith Park
정상 Parking Lot 앞
소나무 숲, 6시 30분까지 도착

준비물

- 가벼운 겉옷
- 운동화 혹은 등산화 착용
- 개인물병

참여 방법

가능하면 각각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참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셨던 나무 십자가, 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종이 십자가 등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나무 십자가


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종이 십자가

종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기도제목을 써서
목에 걸고
참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저야할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 당일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아래쪽에 주차 후 셔틀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주차 안내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가능한 한 일찍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은목** 목사 | 수석부회장 **김대준** 목사 | 총무 **최 훈** 목사 | 사무총장 **최영하** 목사